

세계 1위 자리다툼 치열한 PGA... 한국 선수는 제자리

세계 1위 놓고 온 람, 세플러, 매길로이 경쟁 중
한국 남자선수, 김주형 15위·임성재 18위 유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성적 신통치 않은 탓

미국프로골프(PGA)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둘러싸고 온 람(스페인)과 스코티 세플러(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선수들의 순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21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 랭킹에 따르면 김주형이 15위, 임성재가 18위에 머물렀다.
이경훈은 39위에서 38위로 한 계단 상승했

다. 김시우는 42위를 유지했다. 김성현은 140위에서 135위로 올랐다.
골프 세계 랭킹은 각 선수가 2년간 출전한 대회에서 거둔 성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진다. 최근 열린 대회 성적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한국 선수들 순위가 제체된 것은 작년 열린 PGA투어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성적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서 김성현이 33위, 김주형이 45

위, 임성재가 56위에 그쳐 톱10에 진입하지 못했다.
반면 세계 1위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다. 대회마다 1위가 바뀌면서 세계 골프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온 람은 이번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 12위에 그친 세플러는 1위 자리를 온 람에게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피닉스오픈에서 우승한 세플러에게 1위 자리를 내줬던 매길로이는 이번에는 3위까지 미끄러졌다.
한편 한국 여자 선수들의 세계 랭킹 역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고진영이 5위, 전인지가 8위, 김효주가 9위로 10위권 내 순위를 유지했다.



김주형이 1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첫날 13번 홀에서 어프로치샷을 하고 있다. 김주형은 이번파로 첫날을 마쳤다.

유니폼 거꾸로 입고 나타난 광주FC 이정호 감독...사연은

동계 연습경기 도중 부상 입은 이요뜸, 4~5개월 결장 전망



광주FC 이정호 감독과 안영규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3년 개막 미디어 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20일 미디어데이 행사에 정장 대신 선수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부상을 입은 선수를 감안한 배려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하

나원큐 K리그 2023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이 감독은 옷차림으로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른 감독들은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이 감독은 미드필더 이요뜸의 유니폼 상의를

거꾸로 착용하고 나왔다.

이 감독은 "이요뜸 선수가 동계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 전에 크게 다쳤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위로가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요뜸은 지난 14일 경주한수원과 연습경기 도중 쇄골이 부러졌다. 복귀까지 최소 4~5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전반기에는 나설 수 없는 상태다.

이요뜸의 이탈은 K리그1에 승격할 광주에게 치명타다.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 모두 가능한 이요뜸은 지난 시즌 광주가 K리그2(2부)에서 우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K리그2에서 30경기에 출전해 2골 9도움을 기록했다. 해당 시즌 도움 부문 2위다.

올 시즌 K리그1 잔류가 목표인 광주는 마땅한 대체 선수 영입 없이 이요뜸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이처럼 핵심 선수의 이탈이 발생했지만 이날 이 감독은 오히려 리그 잔류에 대한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다들 승점을 얻기 위해 광주를 잡으려고 할 텐데, 쉽게 승점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는 오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원정 경기로 새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女탁구 리그 우승 포스코...단식 최강 삼성생명 주천희 양하은·유한나·김나영 앞세워 2연속 1위...주천희, 개인다승 1위·신인왕 독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프로탁구 여자 리그 정규리그에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여자 단식 최강자 자리는 삼성생명 주천희(21)에게 돌아갔다.

리그 1위 포스코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 탁구전용경기장 스퀘어T(광교체육관)에서 열린 2023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KTTL) 여자 코리아리그 4라운드에서 2위 삼성생명을 매치스코어 3-2로 제압하고 8연승으로 리그를 마쳤다.

포스코는 승점 42점(12승4패), 삼성생명은 37점(10승6패)으로 정규리그 1위와 2위를 확정했다. 프로탁구리그가 창설된 지난해에 이어 또 정규리그 1위에 오른 포스코는 다음달 24~25일에 열리는 챔피언결정전으로 직행했다. 2위 삼성생명은 다음달 22~23일 열리는 플레이오프에서 3위 미래에셋증권을 상대한다.

삼성생명은 2년 연속 정규리그 2위에 그쳤지만 개인기록상 2개를 독차지했다. 신인상을 확정지은 '괴물 신인' 주천희는 24승6패로 개인다승 1위를 차지했다. 복식 전문 위예지-이채연 조가 복식왕(8승6패)에 올랐다.

이날 경기 1매치 단식에서 주천희가 포스코 지적수 유한나를 2-1(11-9 7-11 11-3)로 제압했다.

2매치 단식에서는 포스코 만민나 양하은이 이시온을 2-0(11-8 11-5)으로 꺾었다.

3매치 복식은 포스코 유한나-김예린 조가 위예지-이채연 조를 2-0으로 이겼다.

주천희는 4매치 단식 에이스 대결에서 양하은을 11-9, 11-3으로 완파했다.

5매치 단식에서 포스코 유시우가 삼성생명 이윤지를 2-0(11-5 11-7)로 꺾어 정규리그 1위를 자축했다.

김연경 재회한 명장 아본단자... '배구여제' 은퇴 말릴까

아본단자 감독과 장시간 대화 고백
김연경 구단 재평가 계기 될 수도
국제올림픽위 위원 도전 등 변수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도드람 V리그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종료 후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신임 감독이 김연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 명장 마르첼로 아본단자(63) 감독이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흥국생명 에이스 김연경(35)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시즌 종료 후 은퇴 가능성을 언급한 김연경이 아본단자와 동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새로 선임한 아본단자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흥국생명은 지난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김연경은 엘레나(22점)에 이어 팀 내 2번째로 많은 21점을 기록했다. 2연승을 거둔 1위 흥국생명(22승7패·승점 66)은 2위 현대건설(21승8패·승점 62)과 격차를 벌였다.

김연경은 아본단자 감독과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4년 동안 선수와 감독으로 리그 우승과 유럽배구연맹(CEV)컵 우승을 일궈낸 인연이 있다.

이날 경기에 앞서 김연경은 아본단자 감독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아본단자 감독은 김연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은퇴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본단자 감독이 유럽무대를 떠나 흥국생명을 택한 데는 과거 인연이 있는 김연경의 소속 팀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본단자 감독이 본격적으로 팀을 지

휘한 뒤 김연경에게 다음 시즌까지 동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본단자 감독 영입 전반기는 구단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아본단자 감독 영입은 김연경이 흥국생명의 구단 운영 의지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연경의 심경에 변화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앞으로 흥국생명의 우승 여부, 김연경의 자유계약(FA) 신분, 김연경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 도전 등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김연경이 IOC 위원에 도전한다면 구단과 아본단자 감독도 은퇴를 만류할 명분이 부족해 지는 측면이 있다. 자유계약 신분이 되는 부분의 경우 한국배구연맹 규정상 김연경은 현재 받고 있는 총액 7억원 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선수생활 연장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흥국생명 구단은 김연경과 은퇴 여부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침이다. 뉴스

조코비치 통산 377주 세계랭킹 1위 '대위업'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이번 주 세계랭킹에서도 1위를 유지하며 '테니스 여제' 스테피 그라프(독일)와 함께 최장기간 세계랭킹 1위 동률을 달성했다.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사무국이 지난 20일(한국시간) 발표한 세계랭킹에 따르면 조코비치가 지난달 30일부터 4주 연속 1위를 차지해 통산 합계 377주 1위의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여자 프로테니스(WTA) 투어 사무국 집계에서 377주 동안 1위를 차지했던 그라프와 동률을 이뤄냈다. 다음주에 발표되는 ATP 투어 세계랭킹에서 조코비치가 계속 1위를 차지할 경우 그라프도 넘어서게 돼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378주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조코비치는 2011년 7월 4일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올라 53주 동안 순위를 유지했다. 이후 2012년 11월 5일부터 48주, 2014년 7월 7일부터 122주, 2018년 11월 5일부터 52주, 2020년 2월 3일부터 86주, 지난해 3월 21일부터 12주 등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역대 ATP 투어에서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던 선수는 모두 28명이다. 이 가운데 조코비치가 가장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기록한 선수가 됐고 그 뒤를 310주 동안 차지했던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뒤를 잇고 있지만 이미 은퇴했다. 현역 가운데 두 번째로 장기간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던 선수는 라파엘 나달(스페인)이다. 그러나 나달은 2009주 조코비치와 현역한 격차를 보인다.

또 현역 3위는 앤디 머리(영국)인데 41주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조코비치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